

# 6·25 상흔 품은 ‘옛 산동교’…붕괴 위험에 철거 수순 밟나

북구·영산강청, 유족회와 보존 방안 협의  
집중호우 파손 중앙부 ‘부분 철거’ 공감대  
남은 교량 활용 추모공간 조성 논의키로  
영산강환경청 협의 결과 ‘최종 변수’ 주목

광주 유일의 6·25 전쟁 전적지인 옛 산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크게 파손된 후 철거를 포함한 복구 방식을 놓고 관계기관과 유족회가 협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주지부 북구지회, 6·25 유족회 등과 옛 산동교의 복구·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집중호우로 교각과 상판이 크게 파손된 교량 중앙부를 철거하고 양쪽 구조물을 존치하는 방식이다.

산동교 전체를 원형 복원할 경우 안전 문제와 향후 집중호우 때 하천 흐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현충시설이라는 역사적 가치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구는 안전성과 재해 예방을 확보하면서도 산동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광주 유일의 6·25 전쟁 전적지인 옛 산동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교각과 상판이 파손됐으며, 북구는 교량 중앙부를 철거하고 양쪽 구조물을 존치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유족회와 협의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옛 산동교의 모습. /조영권 기자

하고 있다. 양쪽에 남은 교량 구조물을 활용해 산동교 전투의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유족회 측도 산동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안전 문제 등을 감안

해 중앙부를 철거하고 양쪽 구조물을 남기는 방안을 놓고 이번 주 중 복구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934년 건립된 산동교는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7월23일 북한군의 광주 진입을 막기 위해 군경 합동부대가 전투를 벌인 장소다. 광주에 남아 있

는 유일한 6·25 전적지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지난해 7월17일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파손되고 상판이 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뒤 북구는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복구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에는 옛 산동교의 상판 일부가 추가로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복구와 설계 용역 업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손상이 가장 심한 10번 교각과 양옆 교각의 높이 차이는 약 30cm로 측정됐다. 지난해 6월 측정된 31.8cm와 큰 차이가 없어 추가적인 구조물 변형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복구는 판단했다.

산동교 재해복구사업에는 총 33억3천8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로 구성됐다.

최종 복구 방식은 하천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중요한 절차가 될 전망이다.

산동교의 역사적 보존 가치뿐 아니라 하천 흐름과 치수·재해 예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철거·존치 범위 등 구체적인 복구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산동교가 현충시설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인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복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구조물을 남겨 추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유족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 “모래에 파묻고, 소화기 분사하고”…‘엽기적 학대’ 선배들 실형

폭처법 혐의 기소 20대 2명 징역형 선고

재판부 “후배 상습폭행…죄책무거워”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 속에 파묻고,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한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됐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C(21)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실업계 고교 재학 당시 동아리 후배였던 피해자를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주먹과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를 사용해 수시로 폭행했으며,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피해자를 파묻고 물을 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팔과 다리를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채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으며,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액정을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상습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거워 뽀터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었던 점을 고려해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지현 기자

## 한밤중 단독주택 불…주민 4명 연기 흡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밤중 불이 나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처치를 받았다.

8일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50분께 남구 월산동의 한 2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25분 만인 8일 오전 12시1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주택 1층 일부와 2층이 전소되고 집기

류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천1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거주자 등 주민 4명 또한 연기에 노출돼 현장에서 소방 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주택 2층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후우 기자

## 건강검진 공가 내고 ‘판짓’…북구 공무원 6명 송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연가 보상비 환수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공가를 신청한 뒤 정작 해당 날짜에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북구청 소속 6·7급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20일부터 2022년 6월15일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신청한 뒤 해당 날짜에 검진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건강진단이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나머지 일부는 수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된 날짜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적정한 공가 사용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023년 북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은 경정계 처분을 받았으며, 공가 사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도 전액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의 비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찬용 기자

발에 거름 주던 60대, 건설장비 끼여 숨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 한 야산에서 60대 가 중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1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A(60대)씨가 소형 건설장비인 스kid로터에 끼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야산에 있는 자신의 발에 거름을 주러 스kid로터를 끌고 홀로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거름을 운반하던 중 기계 레버를 잘못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지현 기자

##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폐업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